마음 채움, 몸 채움, 삶 채움

(마태복음 14:13~21)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8.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19.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 채움, 몸 채움, 삶 채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 채움, 몸 채움, 삶 채움'
본문은 언제 읽어도 신기하고 기분 좋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음 채움, 몸 채움, 삶 채움"이라는 제목은 마음의 배부름, 몸의 배부름, 삶의 배부름의 삼중 배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연말 여행을 오신 권사님을 뵈었습니다. 정동진에 있는 호텔에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게 되어 길을 나섰는데 길이 꽉 찼습니다. 정동진은 이름대로 정 동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인지 연말만 되면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한 인파로 가득 찹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토록 새해맞이에 열심인 이유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해돋이는 참 유혹적입니다. 새빨갛게 이글거리는 해가 수평선 위에서 올라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아도 가슴이 벅찹니다. 하물며 그것이 새해 첫 번째 해라고 생각하면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태양이 어둠을 뚫고 올라오듯이 새해에는 희망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광경이 무척 매력적이기에 역사적으로도 태양신 숭배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최고의 새해맞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태양을 보면서 희망을 품고 염원하는 다분히 우상 숭배적이고 망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올해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앞선 364일을 어떻게 사셨든지 이 말씀과 함께 2019년을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최고의 새해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364일을 그저 그렇게 살다가 기껏 하는 일이 정동진에 가서 해맞이를 하며 희망을 갖는 것이라면 또 그저 그런 2020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 마지막 날을 최고로 마무리한다면 2020년의 출발 또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에서 시작해 더욱 올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 명이 먹은 기적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기적은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다급한 자들에 대한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한두 끼 굶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부르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이 배부르고 몸이 배부르고 또 삶이 배부르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갓난아기의 사명은 잘 먹고 잘 싸며 자라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에 울고 배불러서 웃는 동안에 아기의 삶은 부모가 책임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배고파하고 하나님으로 배불러하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배불러 웃는 삶은 우리의 사명이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배부름이 마음의 배부름, 몸의 배부름, 삶의 배부름의 삼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배부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3장까지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었습니다. 천국을 지속적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옥토로 비유되었고,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한 농부로 비유되었으며, 진주 장사가 찾는 극히 값진 진주로 비유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슈에 묻혀버린 천국을 끊임없이 이슈화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 위해 천국을 가까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육체의 위가 음식으로 채워지기 위한 주머니라면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채워지기 위한

주머니와 같습니다. 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행되는 삶 또한 주머니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주머니에 채워지는 내용물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지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2019년 하루 만에 최고이자 최선의 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새로 시작되는 2020년 새해도 최고로 시작하여 최고위에 더 쌓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로 배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배부름입니다. 그것을 앞선 말씀들에서 그리움이라는 표현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리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배부름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앞서 13장까지 나타난 그리워할 대상으로써의 천국은 이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었습니다. 한편 14장의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움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천국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채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나 판검사가 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류 연예인이 되어서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밥을 잘 먹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최고의 일이 밥을 잘 먹는 일이라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정말 합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기뻐하지 않고 세상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천국으로 채워서 기뻐하고 만족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잘 먹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몸이 있어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삶은 진행되어 갑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천사들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사들은 육체를 가지지 못했기에 세상에 대한 유혹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비로소 하나님과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 아래에 행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

고자 함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삶은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고 천국을 가질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우고, 몸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은 하늘로 가게 되고 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밥을 먹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일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과 명령권을 발동시킴으로써 이루어 가실 일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으로 육체의 배를 채우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세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육체를 통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마음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고, 몸은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끼니를 거르며 몸을 소홀히 한다면 하늘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와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삶의 배부름이 있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허망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다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12달 내내 적자를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나 직장인처럼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2019년을 잘 지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는 삶의 허기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내용은 삶은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를 통해 배부를 수 있습니다. 12달 내내 적자를 보아서 2020년이 다가오는 것이 무섭기만 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아야만 합니다. 감사의 과정은 참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야하고, 육체를 통해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권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소나기처럼 이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았던 시간과 장소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조차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소나기와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12달 내내 적자가 이어진 2019년도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은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천 수, 만 수를 내다보시고 계시며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은 전능하심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랑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속성이며 이 주권은 지금도 나를 향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적자로 마무리하게 된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마음이 허망하고 다가오는 새해가 두렵고 불평과 원망이 생겨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전지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이며 전능하심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12달 내내 적자를 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나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 판단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믿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삶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최선으로 주신 것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또 전지하셔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나의 앞날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셔서 나에 대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은 항상 최선이자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최선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평가절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항상 최고로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왜 12달이나 적자가 나게 하신 것일까요?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원인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에 악하고 약하고 못돼먹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갖는 모든 바람과 소원은 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이 선함이라면 세상을 향한 나의 바람과 소원은 악함과 약함과 못돼먹음입니다. 내가 소원을 따라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속에 악함과 약함과 못돼먹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함과 약함과 못돼먹은 것이 들어있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의 악함과 약함과 못돼먹은 소원이 이루어질수록 악함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행 열차를 타는 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악하고 약하고 못돼먹었는데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12달 적자를 나게 하신 이유는 그래야만 하는 최선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2달 적자를 보았다고 해서 2019년이 허망하게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2019년은 내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덜 사랑하시고 덜 전지하시고 덜 전능하셨어도 이런 적자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셨고 완벽하게 전지하시고 완벽하게 전능하셨기에 이러한 일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2달 연속으로 적자를 보게 하신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고 최고였기에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원죄에서 비롯된 악함과 약함과 못돼먹음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대로 삶이 전개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극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셨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왜 이토록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고 병 걸린 사람도 많고 배고프고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의 사랑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속성으로 우리에게 최선과 최고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둔다면 2019년은 최고이자 최선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은 별로였다는 허망한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우주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심은 올해도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이 하나님 주권의 속성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감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설령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것이 최선입니다. 나의 악함과 약함과 못돼먹음을 다 고려하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설령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삶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 채움, 몸 채움, 삶 채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나의 주권이 철저하게 포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나의 주권이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몸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주권이 발동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아픈 것도 내 소원대로 다 되는 악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마음 아픈 삶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 채워짐과 동시에 하늘에 있는 천국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하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 주권을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 주어졌던 모든 일들조차도 나의 악함과 약함과 못돼먹음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최선임을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19년의 마지막 날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최고의 날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맞이하는 2020년은 최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0년도 한 시도 십자가를 놓지 않음으로써 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주권이 활성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의미 안에서 올 한 해가 최고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2020년이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